

# 제2차 세계대전 시 소련과 미국의 상륙작전부대 운용과 전략적 함의\*

최정준\*\*

- I. 문제의 제기
- II. 상륙작전부대의 특성과 역할
- III. 제2차 세계대전 시 소련과 미국의 상륙작전부대 운용
- IV. 소련과 미국의 상륙작전부대 운용 비교
- V. 결론 및 전략적 함의

## I. 문제의 제기

상륙작전은 인류가 수행해왔던 전쟁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다. 전사에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상륙작전은 B.C. 1250년에 그리스와 트로이 간의 전쟁 중에 있었던 트로이 상륙작전<sup>1)</sup>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 논문은 '2016 한·러 군사학술 협력회의 및 세미나'에서 발표한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소련과 미국의 상륙작전부대 운용 비교"를 수정·보완한 것임.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부 연구원

1) 존 워리, 임웅 역, 『서양 고대 전쟁사 박물관』(서울: 르네상스, 2001), 8-35쪽.

이처럼 상륙작전은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으며 때로는 전쟁의 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sup>2)</sup>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수로(水路)라는 장애물 극복 수단의 제한, 계획수립의 복잡성과 대규모의 피해 가능성으로 상륙작전과 상륙작전부대의 전문화를 위한 노력은 외면 받아 왔다. 이것은 상륙작전이 갖는 여러 가지의 난제와 임무수행영역이 갖는 중첩성에서 일정 부분 기인하고 있었다. 특히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과정의 복잡성과 작전실시간 지휘통제의 어려움 등은 더욱 전문성 있는 부대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세계 각 국은 상륙작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상륙작전의 가치와 효용성이 입증되었으며, 상륙작전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부대가 하나의 독립된 군종(軍種)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sup>3)</sup>

상륙작전은 인류가 육상뿐만 아니라 바다와 강, 호수에서 적과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전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으로부터 육상으로의 전력 투사는 지상에서와는 달리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고 있다.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는 상륙작전은 “방어중인 해안에 성공적으로 침투하는 것은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작전이다”<sup>4)</sup>고 말했다. 이와 유사하게 영국의 군 역사가 리델하트(B. H. Liddell Hart)도 “적군의 면전에서 해안에 상륙하는 것은 항상 가장 어려운 작전들 중 하나였다”<sup>5)</sup>고 상륙작전을 평가했다.

2) Ian Speller and Christopher Tuck, *Amphibious Warfare: The Theory and Practice of Amphibious Operations in the 20th Century*(Cremona: MBI Publishing Company, 2001), 8-12쪽; Merrill L. Bartlett and Jack Sweetman, *The U.S. Marines Corps: An Illustrated History*(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01), 1-9쪽.

3) 이와 관련해서는 김명섭·최정준,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미국 해병대의 발전에 미친 영향,”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2008. 8.), 133-158쪽 참조.

4) Theodore L. Gatchel, *At the Water's Edge: Defending against the Modern Amphibious Assault*(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6), 1쪽.

5) B. H. Liddell Hart, *The Defence of Britain*(London: Faber & Faber Ltd.,

이러한 평가들은 해상에서 육상으로 전력을 투사하여 축적하는 것 즉, 성격이 상이한 차원의 전장인 바다(해상)에서 육지(지상)로 전력을 기동시키는 것은 자연장애물의 극복과 유리한 지형에서 방어를 준비 중인 적의 진지를 돌파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륙작전의 효용성은 작전환경의 변화<sup>6)</sup>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다.

소련의 현대적인 해군력 건설의 주역이었던 고르쉬코프(Sergei Gorshkov)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약 600회의 상륙작전이(해군 보병에 의해)수행되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sup>7)</sup>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상륙작전이 보편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공격군에게 우호적이었던 전반적인 군사·정치적 상황 그리고 방어군을 능가하는 공격군 세력의 집중에 의해서였다”<sup>8)</sup>고 말했다.

소련과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당시 추축국(樞軸國, Axis Powers)이었던 독일·이탈리아·일본에 맞서 승리하였다. 양국은 전쟁 이후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벌어진 양대 전쟁의 승전국으로서 냉전(Cold War)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강대국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태평양지역은 아시아·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 양국의 세력이 지상의 완충지역 없이 직접 마주치게 된 접촉점이 되었다. 태평양지역이 미·소 간의 대립의 장으로 변모하게 된 것은 독일의 패망 후 이 지역에서 일본의 세력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양국 간의 합의에서 기

1939), 130쪽.

6) 상륙작전을 시행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는 작전환경의 변화는 위성·레이다 등 감시능력의 증가로 인한 상륙기도 조기 식별, GPS 교란 등 전자전으로 상륙군 함정·장비 무력화, 상륙군에 대한 핵·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사용 가능성, 상륙 가능해안 일대에 대한 장애물 설치로 기동성 제한, 대(對)해상 및 공중 화력 수단의 정밀도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7) 제프리 톨, 배형수 역, 『21세기 해양력』(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365쪽.

8) Theodore L. Gatchel, 앞의 책, 2쪽.

인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통하여 양국이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을 파멸시키기 위해 협력을 하였지만 이것은 양국에게 서로 상이한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이 되었다. 일본의 패전으로 미국은 태평양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소련은 러·일 전쟁에서의 패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양국은 유럽전역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다양한 작전환경<sup>9)</sup>에 직면하였으며, 지상전 위주에서 벗어나 상륙작전부대를 활용하여 융통성 있는 지상 및 해상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소련은 광대한 영토를 점유하고 있는 대륙국가로서 전통적으로 부동항을 찾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추진해 온 국가였다. 소련은 미국에 비해 해군력을 발전시키기에는 지리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었으나<sup>10)</sup> 해군력 건설의 중요성과 상륙작전부대의 효용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거대한 2대 해양과 접해 있는 국가로서 서부개척이후 서태평양으로 세력을 팽창해 가는 과정에서 해군력의 증강과 더불어 상륙작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양국의 상륙작전부대인 소련의 해군보병과 미국의 해병대가 어떻게 운용이 되었는가를 살펴본 후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소련의 해군보병과 미국 해병대가 참전했던 주요 상륙작전과 지상전 지원 사례들을 통하여 양국 상륙작전부대의 운용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상륙작전의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상륙작전부대들이 가지는 다양한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9)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전역이 대부분 지상전 위주로 진행되었다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는 지상뿐만 해상, 도서, 지상에서 복합적으로 작전이 수행되었다. 또한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작전환경은 지상전과는 완전히 상이한 접근법을 요구했다.

10) 제프리 킬, 배형수 역, 앞의 책, 173-185쪽.

## II. 상륙작전부대의 특성과 역할

### 1. 상륙작전과 상륙작전부대

상륙작전의 기본개념은 ‘바다로부터 전투력을 육상에 투사’하는 것이며, 이는 상륙작전의 본질적 특성이 바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본질적 특성을 근간으로 상륙작전은 여러 군사작전들과 유사하게 수행개념에 있어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상륙작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함정 및 주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한 해군 및 상륙군이 바다로부터 육상으로 투사하는 군사작전’이다. 즉 해상에서부터 적이 점령하고 있는 육상의 특정 지역에 대해 해군 및 상륙군이 전투력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sup>11)</sup>

상륙작전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첫째, 적 중심의 파괴를 위해 적 취약점 및 결정적 지점을 타격하는 것이다. 적의 작전적 또는 전술적 중심들을 파괴하기 위해 취약점과 결정적 지점을 직접 공격함으로써 한 번의 신속한 타격으로 전역(戰域, campaign) 수행의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전승의 호기를 조성한다. 둘째, 차후 작전을 수행 및 지원하기 위한 군사적 거점을 설치하는 것이다. 상륙작전은 해군 및 공군의 전진기지 확보 또는 지상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적 거점지역을 설치하거나 차후 지상작전을 수행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공격하기 위해 실시한다. 또한 적의 전투력 분산을 강요하여 아군의 통제지역을 확장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적 지역 및 시설의 사용을 거부하고 적 부대를 고착 및 주의를 전환시킨다. 상륙작전은 타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적의 지역

11) U.S Joint Chiefs of Staff, *JP 3-02 Joint Doctrine for Amphibious Operations*(Washington D.C: U.S Joint Chiefs of Staff, 2001), 1-1쪽.

또는 시설의 사용을 거부하며, 적의 측·후방 타격 등으로 적 부대를 고착하거나 전방의 교착된 전선을 타개하고 적의 주의를 전환시킴으로써 지상군의 공격기세를 지원한다. 넷째, 안정 및 평화작전을 수행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상륙작전은 국내 및 외국지역에서 실시하는 비전투원 후송작전(NEO: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안정 및 평화작전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sup>12)</sup>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륙작전부대<sup>13)</sup>는 전 세계적으로 약 40여 개국에서 해군 예하 부대 혹은 독립된 부대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평시에는 해군이나 지상군에 편성되어 있지만 유사시 상륙작전을 수행하거나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훈련된 부대를 포함한다.

## 2. 상륙작전부대의 역할

상륙작전부대는 기본적으로 해군력 현시(presence)의 한 수단이다. 해군력은 일국의 대외정책 구현수단으로 해상에서의 해전수행뿐만 아니라 바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즉 전·평시에 수행하는 전통적인 해군력의 역할에 추가하여 정치·외교적 목적인 대외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특정한 수단이다. 이러한 해군력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세분화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상륙작전부대는 전·평시 세력 투사 수단 및 해군력 현시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상륙작전부대가 갖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은 부대를 보유한 국가의 안보환경에 걸맞게 부대를 어떻

12) 해군대학, 『세계전쟁과 함께 한 상륙작전의 9대 Icon』(대전: 해군대학, 2009), 4-5쪽.

13) 이 논문에서 상륙작전부대는 “상륙작전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되고 훈련된 부대”뿐만 아니라 필요시 “상륙작전에 참가할 수 있는 지상군 부대”를 포함한다.

계 활용하는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은 상륙작전부대가 갖는 융통성(flexibility)에서 기인하고 있다.

〈표 1〉 해군력의 역할과 기능

| 구분 | 역 할             |                    | 기 능  |
|----|-----------------|--------------------|--|
| 전시 | 전쟁수행            |                    | ① 인접/연안수역 방어 ② SLOC 보호 및 차단<br>③ 차장 <sup>14)</sup> ④ 해양통제(거부) ⑤ 세력투사 |
| 평시 | 국제적             | 방어, 억제, 강압, 외교적 강압 | ① 상기의 모든 기능<br>② 해군력 현시(진진 억제 및 방어)<br>③ 포함외교 ④ 전략적 억제               |
|    | 국내적<br>(정책적 역할) |                    | ① 주권 수호 ② 해양자원 수호<br>③ 해양질서 유지<br>④ 국내 안정에 기여 ⑤ 국가 발전에 기여            |

\* 출처: 이표규, 『국가 무장론』 (과주: 학술정보원, 2009), 56-57쪽.

위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해군의 전·평시 다양한 역할과 기능 중에서 해군 단독 혹은 상륙작전부대와 함께 결정적인 지역에 대한 세력투사와 해군의 전진기지 획득 등을 수행하는 임무는 가장 전통적인 해군의 임무이면서도 상륙작전부대의 존재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세계 각 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륙작전부대들은 비록 그것이 독립된 부대로서 존재하건 필요시 편조에 의하여 운용되건 자국의 안보환경에 부합되도록 최적화되어 운용되는 융통성을 발휘한다.

오늘날 전 세계를 활동 무대로 임무를 수행 중인 미국 해병대의 역할과 기능을 볼 때 상륙작전부대는 다양하게 운용될 수 있다. 〈표 2〉

14) 차장(screen, 遮障) 이동 중이거나 정지하고 있는 부대의 전방, 측방 혹은 후방에 대한 감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측, 보고 및 적과의 접촉 유지를 통해서 그 부대에 조기 경고를 제공하는 경계임무를 말한다. 군사용어대사전 편집위원회, 『군사용어 대사전』(서울: 청미디어, 2016), 758-759쪽.

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해병대는 해군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결정적인 지역에서의 해양통제권 확보와 해군의 전진기지 획득 등의 전통적인 임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의 안보 및 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비단 미국 해병대에만 국한되는 특성이 아니라 각 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륙작전부대들도 자국의 안보환경에 부합되도록 최적화되어 운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미국 해병대의 역할과 기능

| 구 분                                 | 기 능  |   | 비 고                              |
|-------------------------------------|--|---|----------------------------------|
| 주<br>기능<br>(해군/<br>혹은<br>해병대<br>단독) | ① 적 해군력 파괴,<br>② 적의 해상이동 방해를 통한 상업 활동 방해,<br>③ 일반적 해군의 우세 획득/유지<br>④ 결정적인 지역에 대한 해양통제<br>⑤ 지역적 우세획득 및 유지<br>⑥ 해군 전진기지 획득 및 유지<br>⑦ 지상, 공중, 그리고 우주전쟁 수행 |   | 해병대:<br>함대 해병대,<br>분견대,<br>조직 제공 |
| 보조<br>기능<br>(해병대)                   | 합 동<br>상 륙<br>작 전<br>지 원   | ① 교리, 전술, 기술, 장비 개발<br>② 공정작전을 위한 훈련 및 장비 개발<br>③ 공정작전을 위한 교리, 절차 그리고 장비 개발<br>④ 해군력을 구성하고, 장비하거나 부대 제공<br>⑤ 타군 상륙훈련에 대한 책임 |                                  |
|                                     | 기 타<br>작 전<br>수 행<br>지 원   | ① 핵전쟁 혹은 억제를 지원하기 위한 군사력 유지, 장비 제공,<br>② 전략적 해상수송을 위한 탑재부대 제공<br>③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군사력 제공<br>④ 심리전/특수전/우주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 제공  |                                  |
| 추가 기능<br>(해군과 해병대)                  | ① 적 군사력 차장 ② 지상작전에 근접항공 지원<br>③ 해군 지원작전 수행 ④ 군사정부 임무수행 등   |   |                                  |

\* 출처: The U.S. Dod Directive, No. 5100.1(August 1, 2002), 19-23쪽; 이표규, 앞의 책, 61쪽을 토대로 제작성.

### III. 제2차 세계대전 시 소련과 미국의 상륙작전부대 운용

이 장에서는 소련과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운용하였던 상륙작전부대인 소련 해군보병과 미국 해병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을 때 해군보병이나 해병대 모두 상륙작전부대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이들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규모가 확대되었고 임무수행 능력이 점차 전문화되었다. 소련과 미국의 상륙작전부대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실시했던 상륙작전과 지상군 지원작전을 통해서 부대운용의 효율성과 융통성을 입증하였다.

#### 1. 소련의 해군보병 운용

소련 해군은 1939년 징병제를 채택한 이후 급속히 성장하여 발틱, 흑해, 태평양, 북해함대가 증강되었고 현대화가 이루어졌으며 1941년 6월 독일의 침공을 받을 때까지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해군에 소속되어 있었던 상륙작전부대인 해군보병은 1939년 여름에 크론슈타트 해군기지에서 해군소총여단이 구성되었다가 1940년 6월에 소총여단은 다시 제1해군보병여단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증편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해군보병은 유럽전역에서 제대로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에 참가하였다.

독일이 1941년 6월 소련에 대해 공격을 실시하였을 때, 4개의 함대 중에서 발틱함대 만이 주요 전술부대로 1개 여단의 해군보병부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 발발 이후 1941년 8월과 9월 사이 해군에 약 60,000명 규모의 해군보병대대 혹은 여단 규모의 12개 부대가 편성되었다. 이들 부대들은 거의 모든 해군부대(발틱, 북해, 흑해

함대, 그리고 각각의 소함대)에까지 편성되었다. 이후 독일과의 전쟁이 점차 격화되면서 1941년 후반까지 해군 지상전투부대가 추가로 창설되었다.<sup>15)</sup>

전쟁 초기에 해군보병부대는 각 함대와 소함대를 지원하면서 지상군과 협조하여 주요해안의 군사시설, 해군기지와 항구를 방어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될 때까지 약 50만 명의 해군보병과 해군소총부대로 증편되어 40만 명 이상의 해군보병과 해군소총부대가 지상전을 지원하였고 약 10만 명의 병력이 상륙군과 해군기지 경비 임무를 수행하였다. 1941년 10월에는 25개의 독립여단과 10개의 합동해군보병여단이 창설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소련 함대는 수많은 상륙작전에서 33만 명의 해군보병과 육군부대를 상륙시켰다.<sup>16)</sup>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약 50개의 해군보병과 해군소총여단, 독립여단, 대대, 파견대 등 많은 부대가 창설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륙작전이 실시되었다. 소규모 견제와 정찰기습을 제외하고도 약 600회의 상륙작전을 실시하였고 해군보병 단독으로 약 120회의 주요 상륙돌격을 실시하였다. 소련군이 수행했던 상륙작전은 목표와의 근거리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문적인 상륙함에 의한 지원보다는 상선이나 어선 등을 활용한 임시방편의 상륙주정과 함정을 운용하였다. 또한 상륙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해군의 사전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지 않았으며, 군수지원 또한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sup>17)</sup>

15) 이표규, “러시아 해군보병의 발전과정과 영향력,”(서울: 국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9-49쪽, Bruce W. Watson and Susan M. Watson, *The Soviet Navy*(Boulder: Westview Press, 1986), 47-54쪽, Dominik George Nargele, *The Soviet Naval Infantry-An Evolution Instrument of State Power*(Georgia: Georgia University Press, 1983), 27-169쪽, Michael McGwire John McDonnell, *Soviet Naval Influence: Dominance and Foreign Dimensions*(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7), 247-248쪽.

16) 이표규, 위의 논문, 33쪽; Dominik George Nargele, 위의 책, 79-80쪽.

17) 이표규, 위의 논문, 33쪽; Dominik George Nargele, 위의 책, 85-86쪽.

상륙작전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륙작전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으나 소련 해군보병의 경우는 대부분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였다. 또한 주목할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소련은 독일이 소련의 해안선에 실시하려는 단 한 차례의 상륙작전조차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대상륙방어작전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해상에서 육상으로 전력을 투사하는 작전 이외에도 유럽전역에서 소련의 해군보병들이 주로 수행했던 작전은 지상군의 작전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독일이 침략했을 시 소련군은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세적인 입장에 처해 있었다. 주요 도시와 항구, 해군기지, 지형의 확보와 방어를 위해서 해군 보병부대들이 투입되었다.

서유럽 전역에서 독일을 패망시킨 후 소련 해군보병은 미국 등 연합국의 제의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소련이 내세운 참전 목적은 다음과 같다

“소련은 제정러시아 시기에 빼앗긴 남사할린을 회복하고 대양으로의 자유로운 출구를 보장하며 동방에서 일본의 위협을 제거할 뿐 아니라 일본 식민지 억압에서 해방된 만주와 조선이 다시금 어떤 다른 국가에 종속되거나 대소련 공격을 위한 위험한 근원지 또는 군사기지로써 전변(轉變)을 막는 것”<sup>18)</sup>을 전쟁 목적으로 삼았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소련이 참전목적으로 내세웠던 ‘남사할린 회복과 대양으로의 자유로운 출구 보장’이다. 소련은 전통적으로 부동항을 찾기 위해 남진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러·일전쟁에서 이러한 시도가 좌절된 바 있다. 소련에게 대일선전포고는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 측의 요청도 있었으나 러·일전쟁의 패배에 대한 설욕의 목적

18) 기광서,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과 러시아에서 본 광복의 의의 및 평가,” 『군사』 제 96호(2006. 9.), 77쪽에서 재인용.

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련은 해군보병을 활용하여 사할린을 비롯한 도서군에 상륙작전을 전개하였다.<sup>19)</sup> 소련의 관점에서 볼 때 쿠릴섬을 일본에 양보한다는 것은 일본의 해상 제해권과 미국 및 서방 해군력에 오히츠크해와 소련 극동항구들을 개방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쿠릴섬은 소련 극동과 태평양에서 소련의 전략적 목표들의 중심에 있었다.

소련군의 한반도 진격은 1945년 8월 9일과 10일 태평양 함대 소속 공군이 일본 해군기지가 소재한 옹기, 나진, 청진에 맹폭을 가하면서 시작<sup>20)</sup>되었다. 8월 10일 오전 제1극동전선군 소속 제25군 부대는 경흥을 점령하였다. 8월 11일에는 태평양 함대 소속 정찰대원들이 별다른 작전없이 옹기항에 상륙하였고, 그 이튿날 해군보병 주력이 도착하여 25군 제393보병 사단과 공동으로 이 지역을 장악하였다. 12~13일에는 일본군과의 소규모 전투를 벌인 후에 나진을 접수하였다. 8월 11일에는 사할린의 일본군 기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쿠릴섬을 점령하기 위해 8월 18일부터 최북단 시무슈(Shimushu) 공격을 시작하였다. 소련군은 8월 29일 남사할린을 점령하고,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북방 4도를 모두 점령했다. 이후 1946년 2월 2일 쿠릴섬들은 소련영토에 편입되었고, 1947년 사할린과 쿠릴섬이 사할린주로서 독립행정단위가 되어 현재까지 같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sup>21)</sup>

19) 최태암, “러시아와 일본의 쿠릴섬 문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중심으로,” 『군사』 제74호(2010. 3.), 219쪽.

20) 옹기 상륙 작전(Десант в порт Юки)은 제2차 세계 대전 소련 태평양 함대가 일제 강점기 조선 경흥군 옹기읍(현 선봉군)의 항구 지역에 펼친 상륙 작전이다. 이때 조선인 부대가 같이 상륙하여 한국의 일부 지역이 일제로부터 처음으로 지속적인 해방이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옹기에 성공적인 상륙작전 이후 소련군은 나진과 청진지역에 대한 상륙작전을 실시하였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B%85%EA%B8%B0\\_%EC%83%81%EB%A5%99\\_%EC%9E%91%EC%A0%84](https://ko.wikipedia.org/wiki/%EC%9B%85%EA%B8%B0_%EC%83%81%EB%A5%99_%EC%9E%91%EC%A0%84) (검색일: 2017. 4. 25.)

21) 최태암, 위의 논문, 229-230쪽.



〈그림 1〉 소련의 만주 전략공세작전22)

22) 만주 전략공세작전(Манчжурская стратегическая наступательная операция)은 1945년 8월 9일 소비에트 연방이 일본 제국의 괴뢰 정권인 만주국을 침공해 벌어진 전투이다. 이 전투는 일본 제국의 항전 의지를 완전히 꺾어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전을 앞당기는데 기여했으며, 소비에트 연방은 만주국을 멸망시켰고 사할린 섬 남부와 쿠릴 열도 등을 점령하였다. 소련군은 만주와 한반도 북쪽의 웅기읍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였고 8월 15일에는 청진에서도 일본과 전투를 벌였다. 이 전투는 일본 제국의 또 다른 괴뢰 정권인 몽강국, 일본의 점령지였던 한반도, 사할린, 쿠릴 열도에 대한 공격도 포함된다.

[https://ko.wikipedia.org/wiki/%EB%A7%8C%EC%A3%BC\\_%EC%B5%EC%84%B8%EC%9E%91\\_%EC%A0%84](https://ko.wikipedia.org/wiki/%EB%A7%8C%EC%A3%BC_%EC%B5%EC%84%B8%EC%9E%91_%EC%A0%84)(검색일: 2017. 4. 25.)

8월 13일~16일 동안에 벌어진 청진 지역 전투에서 제25군 393보병사단은 4,000명의 수비대를 배치하고 있었다. 제25군 393보병사단은 일부 나남 보병사단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 16일 오후에 해군보병과 공동으로 이 지역을 점령하였다. 17일 소련군은 나남을 점령하였으며, 이후 일본군이 해로를 통해 본국으로 퇴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19일에 어대진(漁大津), 21일에 원산에 해군보병을 상륙시켰다. 소련군의 군사작전은 주로 함경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서북지방의 진주는 다소 늦게 이루어졌다. 24일 제25군 39보병사단 낙하부대가 평양과 함흥에 투하되어 일본군의 항복을 받았다.

## 2. 미국의 해병대 운용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오렌지 계획’(War Plan Orange)을 수립하였다. 오렌지 계획을 통하여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일본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상륙작전을 통한 전력 투사방안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sup>23)</sup> 오렌지 계획에 따라 미국 해군은 전진기지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이를 전적으로 탈취해야 했기 때문에 상륙전력을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군사전략적 고려에 의하여 미국은 적의 저항에 직면한 상태에서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야만 했다. 미국의 상륙전력 발전은 지전략(geostrategy)과 정치, 예산지원, 작전교리 그리고 과학기술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전하

23) 레인보우 계획(War Plan Rainbow)이 동맹국들과의 연계한 전쟁을 상정한 것이었다면, 오렌지 계획(War Plan Orange)은 미국 단독으로 일본과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오렌지는 일본을 나타내는 암호였으며, 미국의 암호명은 Blue였다. Edward S. Miller, *War Plan Orange: The U.S. Strategy to Defeat Japan 1897~1945*(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1), 1-52쪽.

였다.<sup>24)</sup>

오렌지 계획에 따라 상륙작전 교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해군성에서는 해군참모총장실, 해군 일반위원회, 해군대학, 해병대 사령관실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리준(John A. Lejeune) 해병대 사령관은 상륙공격 임무의 중요성과 이것이 오렌지 계획에 끼치는 기여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고서 상륙작전 교리 개발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해병대에서는 1934년에 ‘상륙작전 지침서 초안(Tentative Landing Operation Manual)’을 발간하였다. 이후 이 교범을 기초로 하여 해군과 육군에서는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자체 교범을 발간하였다.

전간기 동안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교리와 장비가 개발되었고,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상륙작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상륙작전을 실시하기 위하여 투입된 상륙작전부대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다. 광활한 태평양 전역에서 육군과 해병대는 단독 혹은 합동으로 상륙작전을 전개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통하여 육군과 해병대는 태평양 상에서 총 44회에 걸쳐 상륙작전을 수행하였다.<sup>25)</sup> 상륙작전은 전쟁이 개시된 이후 해군이 제해권을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한 이후 반격작전을 시작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최초의 상륙작전은 과달카날에서 이루어졌다. 과달카날 상륙작전 성공으로 미국은 태평양 전역에서 반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24) William Murray and Allan R. Millett, *Military Innovation in the Interwar Period*(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50-95쪽.

25) 전쟁 기간 중 6개의 미국 해병대 사단이 18회, 18개의 육군 사단이 26회의 상륙작전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병력규모 면이나 임무의 중요도에서 볼 때 해병대에 의한 상륙작전이 훨씬 더 전쟁의 방향을 전환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해병대는 작전 중 경험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상륙작전 교리에 반영하여 발전시켜 나갔다. Allan R. Millett, *Semper Fidelis: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Marine Corps*(New York: The Free Press, 1991), 405쪽.

〈표 3〉 태평양 전역에서 미국 해병대의 상륙작전 현황

| 순번 | 상 륵 지 역                         | 일 자        | 상 륵 군                   | 암 호 명<br>(작전명) |
|----|---------------------------------|------------|-------------------------|----------------|
| 1  | 과달카날-톨라기<br>(Gudalcanal-Tulagi) | '42.8.7.   | 해병 1사단                  |                |
| 2  | 뉴 조지아(New Gerogia)              | '43.6.21.  | 해병 1사단                  |                |
| 3  | 초이설(Choiseul)                   | '43.10.28. | 해병 1사단                  |                |
| 4  | 보게니빌(Bougainville)              | '43.11.1.  | 해병 3사단                  | Dipper         |
| 5  | 타라와(Tarawa)                     | '43.11.20. | 해병 2사단                  | Longsuit       |
| 6  | 뉴 브리튼(New Britain)              | '43.12.26. | 해병 1사단                  | Backhand       |
| 7  | 로와-나무르(Roi-Namur)               | '44.1.31.  | 해병 4사단                  | Filntlock      |
| 8  | 과와카레인 환초<br>(Kawakalein Atoll)  | '44.2.1.   | 해병 4사단                  |                |
| 9  | 에인웨토키 환초<br>(Einwetoki Atoll)   | '44.2.18.  | 해병 4사단                  |                |
| 10 | 볼루오피아-탈라시<br>(Voluopia-Talasea) | '44.3.5.   | 해병 5연대                  | Appease        |
| 11 | 에미라우(Emirau)                    | '44.3.20.  | 해병 5연대                  |                |
| 12 | 사이판(Saipan)                     | '44.6.15.  | 해병 2, 4사단               | Forager        |
| 13 | 괌(Guam)                         | '44.7.1.   | 해병 1사단<br>해병 1여단        | Forager        |
| 14 | 티니안(Tinian)                     | '44.7.29.  | 해병 4사단                  | Forager        |
| 15 | 펠리우(Peleliu)                    | '44.9.15.  | 해병 1사단                  | Stalemate      |
| 16 | 이오지마(Iwo Jima)                  | '45.2.19.  | 해병 4, 6사단               | Detachment     |
| 17 | 오키나와(Okinawa)                   | '45.4.1.   | 해병 1, 6사단<br>육군 7, 27사단 | Iceberg        |
| 18 | 오로큐 반도(Oroku Peninsula)         | '45.6.4.   | 해병 4연대                  | Iceberg        |

\* 출처: 김명섭·최정준, 앞의 논문, 141-142쪽.

앞의 <표 3>에서 보듯이 미국 해병대는 태평양 전쟁 시 연대~사단급 이상의 대규모 상륙작전을 전개하였다. 특히 태평양 전역에서 분수령이 되었던 과달카날 상륙작전은 다수의 사상자(사망 1,152명, 2,799명 부상)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후 상륙작전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942년 실시된 상륙작전은 함포 및 항공지원 하의 대대전투단급(BLT: Battalion Landing Team) 상륙작전이었으며 이후에는 사단급 상륙작전이 전개되었다. 태평양 상의 수많은 도서탈환을 위한 상륙작전을 수행하면서 미국 해병대는 상륙작전에 대한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갔고, 그 규모 또한 확대되어 나갔다.

## IV. 소련과 미국의 상륙작전부대 운용 비교

### 1. 국가전략 수행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들은 공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양으로부터 육상으로 군사력을 투사하는 부대 운용의 특성상 상륙작전 부대의 보유 자체만으로도 잠재적인 적국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통한 억제력을 달성할 수 있다. 소련의 해군보병과 미국의 해병대는 그 역할과 임무에 있어 대외적으로 세력을 팽창하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국가전략을 수행하는 전력으로 활용되었다. 소련의 해군보병은 포트르대제의 팽창정책과 때를 같이하여 창설되었으며 소련의 세력이 강대해질수록 그 영향력은 확대되었다. 미국 해병대도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서태평양으로 세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 1-1) 소련의 남진정책(부동항 획득)과 태평양으로의 출구 확보

소련은 전통적으로 부동항을 찾기 위하여 남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대륙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3개의 대양과 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해군력을 건설하고 운용하였다. 크림전쟁이나 북방전쟁, 러시아-핀란드 전쟁 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시행되었다. 이러한 전쟁들에서 해군보병은 해군기지, 항구 그리고 해상의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탈취·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독전쟁에서 해군보병부대는 각 함대와 소함대를 지원하면서 지상군과 협조하여 중요해안의 군사시설, 해군기지와 항구를 방어하였다. 지상전투에서 증원이 필요할 때에는 해군보병은 위험지역에 증원군으로 지원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수행하는 동안 소련은 상륙작전을 위해 10만 명의 병력을 운용하였다.

대독전에서 승리한 이후 참전한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승전국이 됨으로써 소련은 러·일전쟁 이후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소련의 국가지도자 스탈린(Joseph Stalin)은 극동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쿠릴섬의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쿠릴섬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관문으로서 소련을 위해 특별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했다.<sup>26)</sup> 소련은 결국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쿠릴섬을 탈취함으로써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 이때 해군보병부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평양과 소련의 극동 간 왕래를 지배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쿠릴섬의 주요 전략적 가치는 1941년 12월 일본군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할 때 이 섬 가운데 에토로후섬의 히토카푸만(Hitokappu Bay) 기지를 항공모함 기동부대를 위한 부도로서 사용함으로써 입증되었다.

26) John J. Stephen, *The Kuril Islands*(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208쪽.

소련은 러·일전쟁 시 일본과의 대마도 해전(1905년 5월 26일~27일)에서 패함으로써 중국과 한반도를 향한 남진정책이 수포로 돌아갔던 경험이 있다. 러·일전쟁 후 일본과의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러시아는 만주에서 철수하고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이익을 인정하였으며, 여순항과 요동반도, 사할린 남부를 일본에게 양도해야만 했다. 그러나 대일전 선포이후 해군보병을 앞세운 소련군은 한반도와 쿠릴열도, 사할린 등지에 상륙작전을 전개함으로써 과거 일본에게 진 빚을 갚았다.

러·일전쟁의 패전이 부동항을 찾기 위한 전통적인 남진정책을 중단하게 만들었다면 대일전의 승리는 안정적인 부동항의 확보와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보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결국 대일전의 참전으로 소련은 일본에게 빼앗겼던 사할린 섬의 일부와 북방 4개 영토까지 되찾을 수 있었다. 태평양 지역으로의 출구를 개방하고 부동항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을 위해 소련의 해군보병부대들은 세력투사 전력으로써 운용되었다.

## 1-2) 미국의 태평양 제해권 장악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시 미국 해병대는 추축국(樞軸國, Axis Powers)들에 맞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상륙작전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 전쟁 발발 초기에 해병대도 수세적인 입장에 서서 일본의 공격을 방어하기에 급급한 실정에 있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전략환경 변화로 미국 해병대는 태평양의 제해권을 장악하는 데 필수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첫째, 중국 대륙에서 대일전을 수행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변화하였다. 미국은 일본이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을 기습공격 한 이후 파죽지세로 태평양 남방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이를 차단하

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전쟁에 임하는 미국의 최초 전략은 중국과 함께 아시아대륙을 중심으로 일본에 진격하려 하였다. 그 이전에는 필리핀을 교두보로 하여 진공하려고 하였으나 이 지역이 전쟁 초기부터 일본군에게 압도당하여 철군하게 되자 미군은 호주 등 태평양 남단 도서로부터 반격을 시도, 북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장개석이 일본과의 전쟁보다는 모택동과의 세력경쟁에 더 주력한다고 인식한 미국은 1944년 9월 미·영 간의 퀘베회담에서 아시아대륙보다 태평양을 통해 일본을 공략한다는 전략을 확정하였다.<sup>27)</sup> 또한 일본 본토에 대한 작전계획도 1943년까지 ‘본토포위공습’ 계획에서 1944년 봄 이후에는 ‘본토상륙작전’으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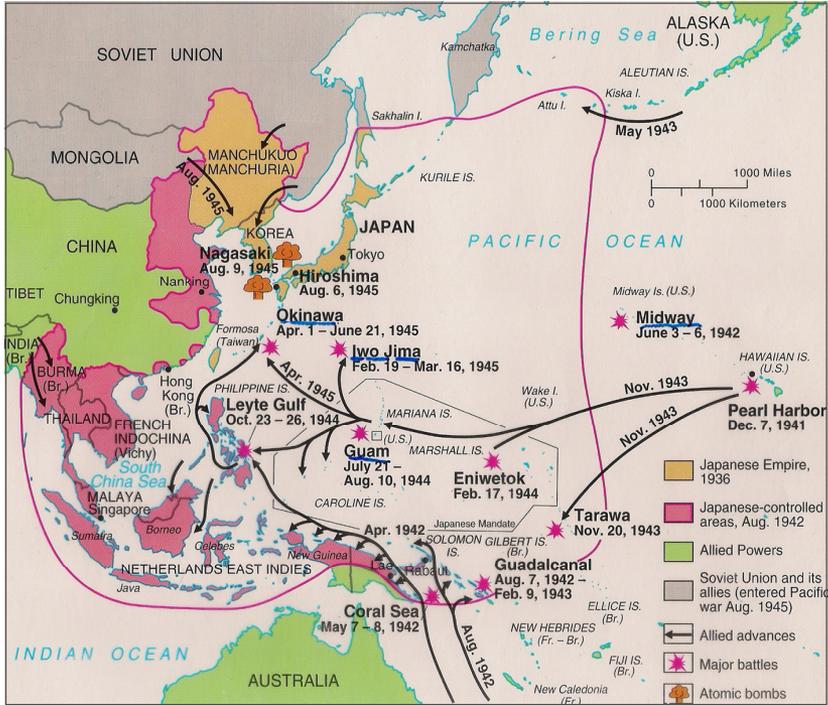
둘째, 소련의 대일전 수행을 위한 미국의 지원 문제에서 소련이 이견<sup>28)</sup>을 보이자 미국은 최초 만주를 태평양 전쟁의 주전장으로 삼으려는 전략을 포기하고 해양에서 전쟁에 주력하면서 대일폭격 기지를 태평양 상의 도서에서 구하려는 전략으로 선회했다.<sup>29)</sup> 이러한 전략적인 배경에서 미국 해병대는 태평양 상의 도서군(島嶼群)에 대한 상륙작전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연합군은 미드웨이 해전을 기점으로 해양에서 주도권을 잡기 시작함으로써 아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과달카날, 괌, 이오지마, 오키나와 상륙작전 등을 통해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던 도서들을 탈환

27) Michael C. Sandusky, *America's Parallels*(Alexander, Virginia: Old Dominion, 1983), 123쪽, 이완범, “동북아 냉전의 원초적 전개과정,” 208쪽에서 재인용.

28) Correspondence, Vol. II, 47-50쪽. 이완범 위의 논문, 208쪽. 미국이 1942년 12월 30일 “일본의 소련공격 시 100대의 4발 폭격기로 무장한 미국 공군의 시베리아 파송”을 제의했을 때 소련은 1943년 1월 5일 보낸 편지에서 스탈린은 전쟁상태도 아닌 극동에 파견할 항공기가 있으면 시투 중에 있는 대독전선으로 회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시베리아에 항공 폭격기지 확보를 희망하였으나 소련의 비협조로 무산되었다.

29) 1943년부터 미국의 전술이 발전되어 대륙에 기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일본 본토를 폭격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으며 더욱이 1944년 6월에는 마리아나 군도를 점령함으로써 시베리아 기지의 확보 필요성이 희석되었다. 이완범, 위의 논문, 208쪽.

하여 아시아·태평양 전쟁 승리에 기여하였다. 미국 해병대는 도서탈 환락전 시 수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전진기지를 확보해 나갔으며, 옥쇄전술로 맞서는 일본군을 패퇴시켰다.



〈그림 2〉 태평양 전역<sup>30)</sup>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과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의 승리로 명실 상부하게 대서양뿐만 아니라 태평양을 통제하는 국가로 국제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시작된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미국 해병대는 해군과 더불어 해양통제권을 차지하는 데 주도

30) [https://www.google.co.jp/search?q=pacific+war+map&noj=1&source=lnms&tbn=isch&sa=X&ved=0ahUKewja6InP3fXTAhXHppQKHe7VCr4Q\\_AUICigB&biw=1280&bih=630#imgcr=4gg26fICEsw-bM:&spf=1494983284412](https://www.google.co.jp/search?q=pacific+war+map&noj=1&source=lnms&tbn=isch&sa=X&ved=0ahUKewja6InP3fXTAhXHppQKHe7VCr4Q_AUICigB&biw=1280&bih=630#imgcr=4gg26fICEsw-bM:&spf=1494983284412) (검색일: 2017. 4. 25.)

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 2. 해양전략

유연성(flexibility)과 기동성(mobility)은 해군력을 운용하는 가장 큰 특징이다. 마한(Alfred T. Mahan)은 바다를 정치·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최고의 교통로라고 주장하였다. 해상에서의 교통로는 한 국가의 상업적 이익과 맞물려 있어 해군력은 해상 교통로(SLOC: Sea Lane of Communication)를 보호하고 확보하기 위한 주 수단으로써 활용되어 왔다. 소련과 미국에서 해군력 건설을 위한 해양전략은 국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동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 2-1) 소련의 소함대 이론에 입각한 연안방어 전략

소련 해군의 전략발전사를 살펴보면 해군전략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국내전(1918~1921)의 종료 후이다. 국내전을 거치면서 제정 러시아의 해군을 해체(1918. 2. 18.)하고 새로이 발족했던 ‘노농적색해군(勞農赤色海軍, Red Navy)’은 점차 쇠약해지는 길을 걷게 되었다. 1920년대 쇠약기의 소련 해군을 지도한 사람들은 해군 아카데미 교수와 학장을 역임한 보리스·보링비치·지베르와 동(同) 학교의 교수인 미하일·알렉산더로비치·페트로프 등이었다. 이들은 마한의 ‘제해권 이론’을 소련 해군전략의 기본으로 삼아 전함, 구축함, 잠수함 등 균형이 잡힌 대해군건설을 지향하였으나 재정결핍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들은 1927년 이후 당시의 해군 총사령관을 역임한 우라디밀·미트로바노비치·올로프 등의 ‘소함대(소전쟁) 이론’ 파의 맹렬한 비판을 받고 실각하고 말았다.<sup>31)</sup>

31) 丸山浩行, 신석용 역, “소련의 신해군전략,” 『해양전략』 제63호(1989. 12.), 184-185쪽.

소련 해군의 독자적인 해군전략은 소함대 이론으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소함대 이론’은 M. 프론체나 M. 토포제나스키의 ‘통일 군사교리’의 영향 하에 제해권 이론이나 주력함 건조를 거부하고 잠수함, 경수상함정, 연안포병 등에 의한 연안방어의 ‘소전쟁 전략’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 소함대 이론가들은 전통적인 대함대를 편성하고 있는 해상함정은 잠수함, 폭격기, 고속초계정의 공격에 약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소장파 간부들은 1척의 전함을 만들기보다는 동일한 비용으로 호위함 20척의 건조가 가능하다는 경제적 논리를 내세워 잠수함, 구축함, 해군기 중시의 건함계획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기지항공대나 연안포대가 최대한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러시아 연해에 있어서 소련군사력의 국지적 우위권을 기초로 하는 해양전략을 제창했다. 더욱이 육·해전략의 일치라는 레닌주의적 사상에서 귀결되는 통일지휘의 원칙에 의해 잠수함, 초계함, 연안포병대, 해군기는 인접하는 육군사령부와 모든 작전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공해상에서 작전하는 해상함대를 보유한다는 마한이론을 폐기하게 되었다.<sup>32)</sup> 이 소장파들의 이론은 1936년 전까지 소련 해군의 지배적인 생각이었으나 1936년 스페인 국내전쟁을 통하여 한계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소련은 프랑코 군에 군수물자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미·영·불·소 4개국이 스페인을 봉쇄하자고 제안했으나 이 봉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선박이 없어서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후 스탈린은 제3차 5개년계획과 함께 ‘대계획’(바르샤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현대적인 전함, 항모, 원해형 잠수함, 해군항공대, 해군보병을 포함하여 완전하게 균형을 이룬 원양함대의 편성을 기획하였다. 그 실행은 리콜라이·게라시모비치·쿠즈네츠프(해군인민위원,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중 해군총사령관을 역임)에게 맡겨졌지만 세계

32) 해군본부, “태평양함대,” 『해군』 제264호(1976. 8.), 70쪽.

대전의 발발로 인해 5개년계획과 함께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게다가 전후에 재개된 대원양해군의 건설계획은 스탈인의 사망, 후르시초프의 핵미사일 편중과 해군경시 등으로 또다시 좌절되고 말았다.<sup>33)</sup>

소함대 이론을 비판했던 고르시코프는 “악의의 선전은 언제나, ‘러시아는 해양국가가 아니고 대륙국가이기 때문에 해군은 필요없다’라는 생각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므로 “해군을 육군으로 대치시키려는 제정관료의 반동사상이나 재정부의 해군에 대한 과소평가가 균형잡힌 해군력의 발달에, 따라서 국가의 방위력에 커다란 손실을 끼쳤다”<sup>34)</sup> 라고 이 시대를 비난했을 정도로 당시의 소련 해군의 전략은 연안방어용의 ‘소함대’이론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상으로부터 지상으로 전력 투사를 위한 상륙작전에 대한 개념 발전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 2-2) 미국의 마하니즘에 의한 해양통제권 확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태평양 전역과 대서양 전역으로 구분되어 해전을 수행하였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해전의 양상은 상이하였는데 유럽의 경우 지상전 승리를 위한 해상교통로 보호 및 유럽 전선 만회를 위한 상륙작전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유럽 내 제2전선 형성을 위한 유럽 내륙에서의 지상전을 지원하는 양상이었다. 태평양 전역의 경우는 일본과 미국 간 항공모함 위주의 해상 항공작전과 상륙작전을 통해 일본을 압박하는 해양통제권 장악을 목표로 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1941년 2월 1일, 미국 해군은 미국 함대라는 호칭을 버리고 태평양 함대와 대서양함대를 창설했다. 미국은 이후 두 대양에서 동시에 공격을 감행하여 두 곳에서 모두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33) 丸山浩行, 신석용 역, 앞의 논문, 186쪽.

34) 위의 논문, 189쪽.

것은 미국 시민들의 유례가 없는 동원, 지도자들의 단호한 결단력, 그리고 해군의 전략적 통찰 덕분에 가능했다.<sup>35)</sup> 1945년 8월 미국 해군은 1941년에 비해 병력은 거의 20배, 함정의 배수톤수는 6배, 함정 척수는 60배, 항공기의 대수는 24배로 각각 증가했다. 해군 전투부대는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어떤 해역에서도 공격작전을 감행할 수 있었다.<sup>36)</sup>

미국 해군에게 해양통제는 승리계획(victory program)의 첫 단계였다. 독일과의 전쟁에서 당장 필요했던 것은 소련의 저항활동을 지원하고 또한 영국을 전진부대 집결지로 만드는 것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유럽 대륙을 침공하는 것이었다. 태평양에서 첫 단계는 중국을 돕고 오스트레일리아로 왕래하는 항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다음 단계는 일본이 미국의 환태평양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한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었다. 최종 단계는 일본 본토의 섬들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두 대양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노력했다. 그것은 해군이 해양통제권을 확보하고 확대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를 위해 해군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해전을 동시에 수행했다. 대서양에서는 일반적으로 해군이 지역적인 해양통제, 즉 선단의 안전과 침공부대에 대한 지원을 추구했다. 태평양에서는 해군이 해병대 및 육군과 함께 일본의 강력한 수상함대, 해군 항공대 그리고 철저히 방어된 섬에 있던 수비대들과 맞섰다.<sup>37)</sup>

미국 해병대는 해군의 태평양 해상통제 전략에 따라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태평양 상의 수많은 유·무인 도서들을 탈환함으로써 미국의 세력을 태평양 서쪽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35) George W. Baer, 김주식 역, 『미국 해군 100년사』(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5), 337쪽.

36) 위의 책, 339쪽.

37) 위의 책, 349-350쪽.

### 3. 해군력(상륙전력) 건설

소련이나 미국 모두에게 상륙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전력을 충분하게 보유하지 못한 상태로 제2차 세계대전에 돌입하였다. 상륙작전을 위한 상륙함과 상륙정, 주정 등의 건설은 저조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원인은 제1차 세계대전 시 갈리폴리 상륙작전의 실패와 워싱턴 군축회의에서 찾을 수 있지만 상륙작전에 대한 관심의 저하도 한 몫을 하고 있었다. 또한 양국 모두에게 상륙작전은 지상전 수행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상륙전력 건설의 우선순위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련과 미국의 상륙군전력은 전후 50만 명<sup>38)</sup>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팽창하였다.

#### 3-1) 지상군 지원을 위한 소련의 해군전력 건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당시 북해함대, 발틱함대, 흑해함대 및 태평양함대로 구성된 4개의 함대와 다뉴브전단, 카스피해전단, 민스크전단, 아무르전단 등으로 구성된 4개의 독립 전단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들 함대세력에는 전함 3척, 경순양함 7척, 기뢰부설함 및 향동함 59척, 호위함 22척, 소해함 80척, 어뢰정 269척, 잠수함 218척, 2,581대의 다양한 항공기 그리고 260문의 해안포 등이 있었다. 소련의 함대들은 비록 여러 전역에 분산되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은 전통적으로 지상전 위주의 군사전략에 따라 이러한 해군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해군전략을 가지 못하였다. 이는 결국 해군의 가장 중

38) 소련 해군보병은 개전 초 발틱함대에 1개 여단급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종전 시 약 50만 명으로 증편되었다. 미국 해병대는 일본의 진주만 공격 당시 18,000명 수준이었으나 1945년 8월 종전 시에는 6개의 사단과 5개의 비행사단으로 편성된 최대 485,000명으로 증가하였다.

요한 임무인 적 해상세력의 격멸, 해상교통로(SLOC) 보호 및 차단, 전진기지 획득 등에 투입시키기 위한 전력 건설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소련 지도자들이 독립적인 해군작전 수행보다는 지상군 보완 차원에서 해군을 투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sup>39)</sup>

〈표 4〉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증강된 소련 해군보병의 규모

| 구 분         | 여 단   | 연 대                     | 대 대  |
|-------------|---|-------------------------|--|
| 북부함대        | 12해군보병여단,<br>63해군소총여단                                       | 122, 125, 126<br>해군보병연대 | 17, 18해군보병대대   |
| 발틱함대        | 1, 2, 3, 4, 5, 6, 7, 8,<br>56, 260해군보병여단<br>3, 69, 70해군소총여단 | 4개의 연대                  | 40개의 독립해군 보병대대   |
| 흑해함대        | 1, 2, 7, 8, 9, 83,<br>255해군보병여단                             | 1, 2,<br>3해군보병연대        | 14, 15, 16, 142, 143,<br>144, 305, 322, 327, 369,<br>384, 386, 393<br>해군보병대대 |
| 태평양함대       | 13, 14, 15해군보병여단  |                         | 75, 77, 355, 358, 365,<br>390해군보병대대,<br>140해군정찰대                             |
| 카스피해<br>소함대 | 11, 15, 62, 64, 70,<br>72, 81해군보병여단                         |                         |  |

\* 출처: Dominik George Nargele, 앞의 책, 84-87쪽.

소련 해군보병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발틱 함대에서 1개 여단급 규모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의 지시에 따라 1941년 10월 18일에는 25개의 독립여단과 10개의 합동해군보병여단이 창설된 이후 더 많은 부대가 독립연대와 대대로 계속 창설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소련의 해군 함대들은 다양한 상륙작전에서 33만 명의 해군보병과

39) 해군본부, 『중국·러시아 해군사 연구: 해군력 발전·건설을 중심으로』(대전: 해군본부, 2001), 282-283쪽.

육군부대를 상륙시켰다.

앞의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소련 해군보병은 비약적으로 그 규모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륙작전부대를 지원하기 위한 해군함정의 건설은 지지부진하였다. 비록 병력의 규모가 양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성장을 하였을지라도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원세력인 상륙함과 상륙주정, 화력지원함, 공군세력의 복합적인 전력증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균형적인 해군의 전력 건설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한계점은 임무수행의 제한으로 나타났다. 소련 해군보병은 상륙함과 주정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하여 고속의 연안 경비선과 상선, 전투함 등을 활용하였다. 상륙작전을 위해 특화된 함선인 LST(Landing Ship Tank)와 같은 함정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병과 탱크 등의 상륙은 제한되었다. 이러한 중화기의 상륙 제한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함포와 전술항공지원에 의존해야만 했다.<sup>40)</sup>

해군력 증강에 관심이 높았던 스탈린은 해군력 증강을 위하여 미국, 프랑스 등에 기술제공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는 등 전함 건조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무렵 히틀러와 체결한 불가침조약을 이용, 독일로부터 건조기술을 도입하여 1939년부터 연간 20만 톤에 이르는 함정 건조계획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소련의 해군력 증강 지원 요청에 대하여 소련을 침공할 속셈을 품고 있던 독일은 기대한 만큼의 기술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스탈린도 히틀러의 러시아 침공 위협이 높아지자 다시금 지상군 육성에 중점을 두게 됨으로써 모든 대형 함정의 건조가 중단되었다.

이러한 전력건설의 지연과 더불어 소련 해군에 있어 중요한 문제점은 독자적인 해군 전략의 부재와 지상전 지원 위주의 운용술에 있었다. 결국 소련 해군은 1941년 6월 22일 독일군이 침공하자마자 흑해

40) Michael MccGwire John McDonnell, 앞의 책, 248쪽.

함대의 주요 기지들을 잃고, 발틱함대마저 봉쇄되어 초기에 제해권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스탈린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세력보존 전략에 따라 수상함들은 전쟁종료 시까지 전투에 참가할 수 없었다.<sup>41)</sup> 소련 해군보병도 바다로부터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결국 항구나 항만, 항구 시설 방호, 지상군 지원작전에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

### 3-2) 장거리 해상투사를 위한 미국 해군의 전력건설

미국 해병대는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수행하면서 획기적인 발전 과정(evolutionary process)을 경험하였다. 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당시 해병대의 규모는 18,000명 수준이었으나 전쟁

〈표 5〉 미국 해군의 상륙함정 증가 현황

| 구 분                   | 과달카날<br>(1942.8.) | 타라와<br>(1943.11.) | 사이판<br>(1944.6.) | 오키나와<br>(1945.4.) |
|-----------------------|-------------------|-------------------|------------------|-------------------|
| 상륙지휘함(AGC)            | 0                 | 0                 | 2                | 6                 |
| 전함(OBB)               | 0                 | 3                 | 6                | 10                |
| 순양함(CA/CL)            | 8                 | 4                 | 11               | 13                |
| 호위함(CVE)              | 0                 | 5                 | 7                | 21                |
| 공격 수송함(APA/AP)        | 13                | 13                | 25               | 130               |
| 공격 수송선<br>(AKA/AK)    | 5                 | 3                 | 8                | 54                |
| 대형 상륙용 주정<br>(LSD)    | 0                 | 1                 | 5                | 6                 |
| 상륙함(LST)              | 0                 | 3                 | 53               | 187               |
| 기뢰제거함<br>(DMS/AM/YMS) | 3                 | 2                 | 21               | 96                |

\* 출처: Alexander H. Joseph, *Storm Landings*(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7), 193-195쪽.

41) 해군본부, 『중국·러시아 해군사 연구: 해군력 발전·건설을 중심으로』, 282쪽.

중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1945년 8월 전쟁이 종전되었을 시에는 6개의 사단과 5개의 비행사단으로 편성된 최대 485,000명으로 증가하였다.<sup>42)</sup>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의 증가와 아울러 상륙군을 해상으로 이동시키고 상륙함을 호위할 수 있는 해군함정들의 숫자도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폭 증가하였다.

미국 해병대가 상륙군으로써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병력 규모 증가만큼이나 획기적인 기여를 했던 것은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 주정과 장비들의 발전이었다. 1942년 이후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상륙작전에 활용이 가능한 수많은 아이디어를 반영한 새로운 장비들이 개발되었다. 1940년 다카(Dakar) 탈환에 실패한 이후 영국에서는 해안에 탱크를 상륙시키기에 적합한 대양을 항해할 수 있는 상륙함선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항구의 모래 둔덕을 극복할 수 있는 흘수가 낮은 특별한 함정인 LST를 개발하였다. 미국에서는 뉴 올랜드(New Orelands)의 함선건조자인 앤드류 히긴스(Andrew Higgins)가 LCM(Landing Craft Mechanised)를 포함한 몇 종류의 상륙주정을 개발하였다. 또한 특수한 상륙환경과 임무 수행에 적합하도록 약 80 종류의 다양한 상륙함선과 주정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함선들은 상륙작전을 위한 계획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sup>43)</sup>

42) U.S. MC, *Marine Corps History*(Quantico: U.S.MC Education Center, 1968), 51-62쪽.

43) Michael Evans, *Amphibious Operations: The Projection of Sea Power Ashore*(London: Brassey's Ltd, 1990), 26쪽.

#### 4. 전략·전술

군사전략은 국가목표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대를 운용하는 술과 과학이다. 해군전략은 해군의 성분작전부대를 운영하는 술과 과학을 말한다. 각 국의 해군은 이러한 군사전략과 해군전략에 따라 해군과 상륙작전부대를 운용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소련의 해군전략은 상호간에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소련의 해군은 지상군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군이 해안과 인접한 곳에서 측방을 노출시키는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었다. 지상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엄호세력으로써 해군과 해군보병의 협조된 공격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미국은 소련과는 달리 전형적인 해양국가의 면모를 보이면서 마한의 '제해권론'에 충실하여 서부개척 이후 서태평양 방향으로 세력을 팽창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상에서 함대결전과 해병대에 의한 전력투사를 통해 전진기지를 확보하고 이를 방호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발전시켜 나갔다.

##### 4-1) 지상작전의 측·후방 지원을 위한 보조작전

소련 해군보병이 수행했던 상륙작전은 부대의 구성, 임무, 표적에 따라서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혹은 특별 상륙작전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4가지 형태의 상륙작전은 공중돌격, 공중기동 혹은 상륙군이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상륙군이 독자적으로 실시하였다. 전략적 혹은 작전적 수준의 상륙작전에서 해군보병은 제2파(second wave)로 상륙하는 지상군을 위해 제1파(first wave)로서 상륙을 실시하여 해안 두보(beachhead)를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작전적 수준의 상륙작전은 참가하는 병력의 규모와 표적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되었다. 이러한 수준의 상륙작전은 일반적으로 해군의 정형화된 상륙작전 형태였으며 대략 참가병력은 25,000명 정도였다. 전술적 수준의 상륙

작전은 가장 보편적인 상륙작전의 형태로서 지휘소, 병참시설, 전술 핵무기의 이동체계, 철로, 중요한 교량이나 교차로의 확보, 수력발전소의 파괴, 중요 지형지물의 점령, 적 병력의 이동 방해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해군보병은 적 후방기지사나 군수지원 시설의 파괴 임무도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해군보병은 적이 파괴하기 이전에 적의 해군기지나 해안 시설물, 공항의 확보뿐만 아니라 견제와 정찰-파괴(reconnaissance-sabotage) 상륙을 실시하였다.<sup>44)</sup> 이러한 전술적 상륙작전은 증강된 중대 혹은 대대급이나 연대급의 부대가 대규모 상륙작전 부대의 일부나 혹은 단독작전으로 수행하였다.

해군보병의 상륙작전은 병력과 장비의 탑재, 상륙해안 지역으로 이동, 돌격 그리고 임무완수 단계 등 일반적으로 4단계로 이루어졌다. 성공은 기습과 속도, 계획과 이동 단계에서의 보안유지, 해안을 방어하고 있는 적의 방어시설의 파괴, 지속적이고 세밀한 화력지원함과 항공기와의 협조, 확고하고 유연하면서도 일관적인 돌격부대에 대한 통제에 있었다.

상륙군은 함정에서 하선하여 해상으로 이동하는 순간이 가장 취약했기 때문에 제1파가 상륙하기 전에 상륙해안에 대하여 함포와 항공기를 이용하여 준비사격을 실시했다. 상륙하는 동안에는, 상륙군에 위협이 되는 모든 표적에 대하여 상륙함정에 탑재된 화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화력을 집중하였다. 해안두보가 확보되면 해군보병은 일반적으로 지상군에게 그 지역을 인계하고 철수하였다.

소련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된 144회의 상륙작전 중에서 63회는 24시간 이내에 준비되어 실시되었으며, 이중 3회가 작전적 수준(사단급)규모로 실시되었고 전략적 수준의 작전은 1회 실시되었다. 전형적인 상륙작전은 1941년 6월 북해 함대 사령관인 콜로프코(A.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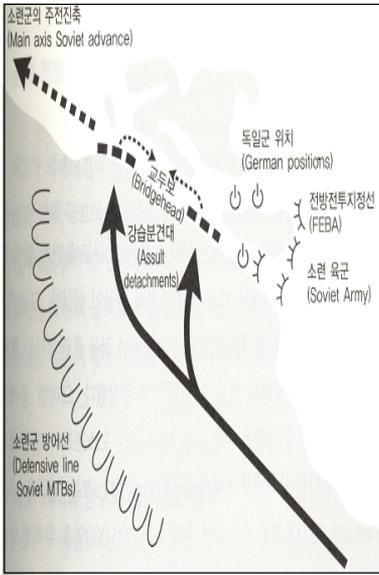
44) Milan Vego, *Soviet Naval Tactics*(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2), 287-288쪽.

Golovko)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무르만스크(Murmansk) 근처의 해안에 독일군이 신속하게 접근해 오자 해군보병을 48시간 내에 소집하였고, 2시간 안에 수행할 수 있는 2단계의 상륙작전을 계획하였다. 그는 해군보병과 육군, 국경경비대 병력을 작전에 투입하였으며 일부 병력은 어선(fishing boat)에 탑재되어 작전에 참가하였다. 비록 이렇게 성급하게 준비된 상륙작전이 초기에는 소련군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연습을 포함해 계획수립도 점차 발전하게 되었다.<sup>4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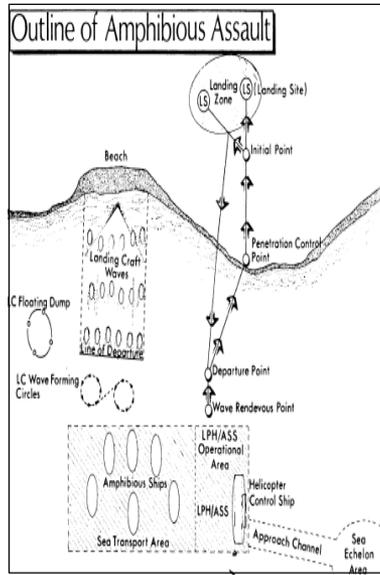
소련 해군보병의 상륙작전은 근거리 작전을 포함한 기습적인 돌격, 임시방편의 상륙함, 최소의 해군지원, 제한된 군수지원 등에서 미국 해병대가 수행했던 대규모의 상륙작전과는 차이점이 있었다. 소련 해군보병이 실시했던 이러한 제한된 여건에서 실시된 작전은 분명히 실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륙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소련 해군보병이 실시한 많은 상륙작전은 부여된 임무를 달성하였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전반적으로 소련 해군보병이 실시했던 상륙작전은 단거리에서 이루어졌으며, 해상을 연한 지상군의 작전을 측·후방에서 지원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 전개했던 소련 해군보병의 상륙작전은 범위와 규모면에서 주로 작전적 수준(사단급 수준) 이하의 규모가 다수를 차지했다.

소련 해군보병은 다양한 작전환경 하에서 융통성 있게 운용되었다. 개전초기에는 핀란드와의 전쟁에서 상륙작전을 전개하였으며 다수의 지상작전에 참가하였다. 이후 독일과의 전쟁에서는 수세적인 입장에서 소련의 주요 도시와 지역들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 기간 중 가장 대표적인 전술인 데산트(Desant)라는 새로운 전법을 개발한 것이다.

45) Michael MccGwire and John McDonnell, 앞의 책, 247-248쪽.



〈소련 해군보병의 데산트 상륙전술<sup>46)</sup>〉



〈미국 해병대의 상륙돌격 전술<sup>47)</sup>〉

〈그림 3〉 소련과 미국의 상륙작전부대 운용 전술 비교

데산트는 전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상이나 공중에서 적 영토에 상륙하기 위하여 특별히 훈련된 군대 혹은 상륙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데산트의 핵심적인 원칙은 적의 방어진지를 교란하기 위하여 측·후방으로 신속하게 상륙군을 기동시키는 데에 있었다. 데산트는 헬기나, 공중강습, 탱크 그리고 해안을 연해 상륙군을 기동시키는 것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데산트는 상대적으로 지상군의 주력과 상륙군이 상륙한 직후에 단시간에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될 때 전방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졌다.<sup>48)</sup> 이러한 데산트는 미국 해병대가 견고하게 방어중인 적 진지에 대규모

46) 제프리 킬, 배형수 역, 앞의 책, 365쪽.

47) Michael Evans, 앞의 책, 109쪽.

48) 위의 책, 9-11쪽.

모로 실시하는 상륙돌격작전에 비해 그 규모와 시기, 수단과 방법 측면에서 소규모라는 특징을 지닌 것이었다.

상륙작전의 특성상 다른 군종과의 합동작전이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한다. 소련군에 있어서 제2차 세계대전은 해군과 육군 간의 합동작전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해군보병부대에 의한 상륙작전, 해군기지에 대한 방어, 광대한 해안지구의 영토 개방, 해안에 근접하여 추진된 적 부대의 봉쇄작전을 수행할 때 육·해군 간의 합동작전은 잘 이루어졌다.<sup>49)</sup>

그러나 전반적으로 소련 해군의 경우 균형적인 해군력 건설과 운용보다는 연안방어 위주의 ‘소함대론’이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군보병의 역할은 축소되거나 상륙작전의 전형적인 형태인 상륙돌격의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해군보병은 상대적으로 지상군을 지원하는 임무를 상륙돌격작전에 비해 빈번하게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점에 노정되어 있었다.

#### 4-2) 견고한 적 방어진지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상륙돌격 작전

풀러(J. F. C. Fuller)는 태평양에서 미국 해병대에 의하여 전개되었던 상륙전술이 “전쟁 기간에 발생한 가장 광범위한 전술적 혁신”<sup>50)</sup>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미국 해병대는 태평양 상의 수많은 도서에서 상륙작전을 전개하면서 상륙전술을 발전시켰다. 태평양 상의 도서에서 실시되었던 미국 해병대의 상륙작전은 견고하게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적 해안에 대한 전형적인 ‘상륙돌격’작전의 형태를 띠었다.

태평양 전역에서 미국 해병대에 의한 상륙작전은 대부분 사단급 이

49) 체르나빈, 해군본부 역, “소련 해군의 전술,” 『기술정보』 제27호(1987. 9.), 23쪽.

50) Theodore L. Gatchel, 앞의 책, 1쪽.

상의 대규모로 실시되었다. 많은 수의 병력과 장비, 화기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표 5>에서와 같은 상륙함정과 주정의 지원이 필수적이였다. 태평양 상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섬들은 미국 해병대가 상륙작전 교리를 적용시키고 전술을 연마하는데 있어 아주 좋은 시험장 역할을 하였다. 미군의 전진로 상에 위치한 수많은 섬들은 아주 작은 섬으로부터 매우 커다란 섬, 숲과 개활지가 있는 화산섬, 정글로 뒤 덮여 있는 커다란 산악지형의 섬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도서를 방어하고 있는 적들의 능력과 전술은 항상 변화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상륙작전을 계획하고 실행된 것은 없었다. 거의 모든 작전은 새로운 지형에서 이루어졌으며 본질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부대, 함정, 상륙정, 운용개념, 전술, 지휘통제의 기술 그리고 군수지원 절차에 의해 시행되었다.<sup>51)</sup>

미국은 태평양 상의 도서를 탈환한 이후 ‘도서기지전략’을 추구했다. 도서기지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대륙의 현지군에 대한 보급창고의 역할도 하였다. 필리핀, 오키나와, 괌 등과 함께 이러한 도서기지들은 대륙에 있는 기지보다 방위가 용이하며 전시에는 제해권과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었다. 또 정치적으로 이러한 도서기지를 가진 나라들은 서방측과 역사적인 유대를 가진 동맹으로서 미국이 대륙에서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에 비해 훨씬 적은 정치적 비용으로써 기지방위를 위해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sup>52)</sup> 미국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통해 도서를 탈환하고 전진기지를 건설함으로써 향후 미국이 태평양을 통제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미국 해병대는 다양한 환경에서 실시했던 상륙작전 경험들을 상륙작전 교리에 반영시켜 발전시켜 나갔다.

51) 김명섭·최정준, 앞의 논문, 143쪽.

52) 해군본부, “태평양 함대,” 『해군』 제264호(1976. 8.), 66쪽.

## V. 결론 및 전략적 함의

상륙작전은 인류의 전쟁 역사와 더불어 발전해 왔으며 전쟁의 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소련과 미국은 외부로 팽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전세를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상륙작전 부대가 가진 효용성과 융통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소련은 전통적으로 대륙국가로 간주되어 왔으나 지구의 1/6을 지배하고 3개의 대양과 13개의 바다와 영토가 인접되어 있으며 42,000km의 해양 국경선을 가진 국가로 해양국가적인 성격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지정학적 환경으로 소련은 18세기 표트르 대제 때에 해군이 창설되었으며 해군보병도 해군과 함께 북방전쟁을 비롯하여 지상군 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해군보병은 부침의 역사를 거듭한 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대독전과 대일전에서 지상군 지원작전과 상륙작전을 수행하였다.

미국 해병대는 18세기 후반에 창설된 이후 미국이 서태평양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점차 규모와 임무수행 영역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미국 해병대도 수많은 존폐 논쟁에 휘말렸으며 상륙작전을 독자적인 임무 영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태평양 전역에서 미국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독립 군종으로서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소련 해군보병과 미국 해병대에게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 확보와 상륙작전의 효용성과 융통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소련 해군보병은 러시아-핀란드 전쟁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대독전에서는 수세에 몰린 지상군 지원작전, 주요 도시 방어 및 탈환, 항구 및 항만시설의 방호 임무를 수행하였다. 대일전에서는 한반도와 북방도서에 대한 상륙작전을 전개하여 러·일전쟁에서 상실했던 영토를 수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미국 해병대는 일본의 진주만공습 이후 수세에 있던 전황을 과달카날 상륙작전을 시작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태평양 상의 수많은 도서 탈환작전을 전개함으로써 일본 본토를 공습하기 위한 전진기지를 획득하였다.

해군보병과 해병대는 해상으로부터 육상으로 세력을 투사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되었고 국가의 세력이 대외로 팽창 정책을 추진하거나 전세를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시킬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소련과 미국의 상륙작전부대는 다음과 같은 운용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였다.

첫째, 국가전략 수행 측면에서 볼 때 소련과 미국의 상륙작전부대들은 대외적으로 세력팽창 시기, 수세적인 전황(戰況)을 공세적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소련의 해군보병은 부동항 획득과 남진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소련이 부동항을 찾기 위해 주변국과 전쟁을 계획하고 수행할 때 해군보병은 상륙작전뿐만 아니라 지상전에도 참전하여 존재감을 과시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역에서는 대일 선전포고 이후 한반도 북부 지역 회복과 러·일전쟁에서 상실했던 쿠릴섬 등에 대한 탈환 작전은 해군보병의 상륙작전으로 시작되었다. 미국 해병대는 마하니즘(Mahanism)을 바탕으로 서태평양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갈 때 태평양상의 전진기지 획득과 방호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미드웨이해전 이후 공세로 전환할 때에는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도서들을 상륙작전을 통해 탈환함으로써 태평양의 해양통제권을 장악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둘째, 상륙작전 부대의 전력을 건설하고 운용하는데 영향을 미친 소련과 미국의 해양전략에서는 양 국가 간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소련의 경우 적극적인 해양진출을 위해 마한의 '제해권' 사상을 도입하였으나 정치·경제·사회적인 문제로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소함대'

이론을 토대로 연안방어 전략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연안방어전략으로 해군보병은 지상군 지원 개념이 우선시 되어 장거리 해상으로부터 세력을 투사할 수 있는 상륙작전 개념과 교리를 발전시킬 수 없었다. 미국 해병대는 마한의 '제해권' 확보 개념을 바탕으로 해군력을 증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군의 전진기지 확보 및 방호,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태평양 상의 수많은 도서탈환 작전을 전개하면서 장거리 상륙작전을 수행능력을 전문화 시켰다.

셋째, 소련과 미국의 군사력 건설의 방향은 상륙작전 부대들의 임무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비록 소련이 스탈린에 의해 해군력 증강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전력이 증강하지는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 해군보병은 규모면에서 엄청난 증가를 가져왔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함정과 상륙주정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수행하면서 획기적으로 상륙작전 능력을 발전시켜 나갔다. 병력 증가만이 아니라 상륙작전을 위한 특수 주정과 장비들의 발전이 뒷받침 되었다. 해군력 건설은 근본적으로 소련과 미국의 산업능력의 차이에 근간하고 있었지만 상륙전력 건설에 대한 관심의 차이 또한 양국 상륙작전 부대의 활용 범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넷째, 상륙작전 부대를 운용하는 전략과 전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소련과 미국의 상륙작전부대들은 현저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소련의 해군보병부대들이 제한된 함정과 장비 등으로 미국 해병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거리, 단기간, 소규모의 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소련 해군보병은 '데산트(Desant)'라는 개념의 새로운 상륙전술을 개발하였는데 미국 해병대가 상륙돌격 작전을 전개하는 것과는 상이하게 적측·후방교란에 주목적을 두고 있었다. 해군보병의 상륙작전은 근거리 작전을 포함한 즉흥적인 돌격, 임시방편의 상륙함, 최소의 해군지원, 제한된 군수지원 등에서 미국 해병대와 상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했던 다수의 상륙작전에서 대부분 성공을 거두었다. 이와는 달리 미국 해병대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돌격 후 목표 탈취까지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대규모의 상륙작전을 전개하였다.

소련과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운용하였던 상륙작전 부대들은 개전 초기에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상륙작전에 대한 교리를 정립해 나갔고 해군·공군, 때로는 육군과 합동작전을 통해 전승 달성에 기여하였다. 비록 소련의 해군 보병과 미국의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규모와 수단, 방법 면에서 차이가 있었을지라도 국가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운용될 수 있는 융통성을 보여 주었다. 또한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통해 존재감을 각인시킴으로써 상륙작전부대의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원고투고일: 2017.3.31, 심사수정일: 2017.5.22, 게재확정일: 2017.5.22.]

주제어 : 상륙작전, 해병대, 해군보병, 제2차 세계대전, 데산트 전술, 상륙돌격

<ABSTRACT>

## A Study on the Strategic Implication of the Employment for the Amphibious Operational Forces of the U.S.S.R and USA During the WWII

Choi, Jung-Joon

Amphibious operation has developed with war history and it's been conducting decisive role at the war. Amphibious troops did a key role when they swept the enemies and changed the war status from defensive to offensive direction.

The U.S. and U.S.S.R fully understood the usefulness and flexibilities of amphibious troops. Although the U.S.S.R was known as a continental state, it built up amphibious power. On the contrary, the U.S. was a maritime nation it utilized the Marines when it expanded it's power to the West Pacific area.

This article examined how the U.S. Marines and U.S.S.R Naval Infantry were employed during the World War II and found out its strategic implication. There were seve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m. Both the U.S. and U.S.S.R, employed the amphibious troops when they tried to secure the lands and islands which were strongly defended by the enemies. The Marines and Naval Infantry showed off their sufficient capacities as an assault troops to recover the lost territories. In the beginning of the World War II the Marines and Naval Infantry of both countries hadn't full-fledged power to project, but they have expanded their size and grown their capacities during the wartime.

However, there were lots of differences between them in conducting national strategy, building up the military powers, the strategy and tactics. The U.S. Marines usually did amphibious assault which was a large scale and from the long distance. In contrast, the U.S.S.R, Naval Infantry operated within the short distance and small groups but it developed the unique tactics called "Desant" that aimed at the enemy's side and rear area attack

to support the Army. It was totally different from the U.S.'s tactics. The former not only made progress amphibious doctrine, and built up enough ships but also supported by coordinated ship and air fire when they performed the mission. It usually conducted the amphibious operation by the systematic procedures from its first step to end. The latter made use of temporary amphibious ships, since improvisational assault and Navy's fire support was limited.

Although the U.S. Marines and U.S.S.R.'s Naval infantry were small sizes when compared with Army and Navy, they not only verified the efficiency but also showed the flexibilities of the amphibious troops.

In this study we found that the U.S Marines and U.S.S.R Naval Infantry contributed the development of various amphibious operational skills and reminded the value of their existence. The amphibious troops can be easily affected by nation's strategy and their performances when they try to survive as an independent military service.

Keywords : amphibious operation, Marines, Naval infantry, world war II, Desant tactics, amphibious assault